

그래핀 컨퍼런스 1월26일 개최

디스플레이뱅크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1월26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<그래핀 응용 신시장 창출을 위한 컨퍼런스>를 개최한다.

그래핀은 전자 이동도가 실리콘(Silicone) 반도체보다 100배 이상 빠르며, 강도도 어느 나노물질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잘 휘고 투명하며, 열 전도율이 뛰어나고, 잡아당기거나 휘어져도 전기적 특성이 변하지 않아 디스플레이, 터치스크린, 태양전지 등 투명전극으로 상용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신소재로 알려졌다.

현재 국내에서는 상온에서 고품질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발견하는 등 상용화를 위한 연구활동이 진행되고 있다.

컨퍼런스에서는 성균관대학교의 안종현 교수, 삼성테크윈의 조승민 박사 등이 연사로 참여해 ▲국내 산업계의 그래핀 양산화 및 응용 제품 개발동향 ▲학계의 그래핀 신규 응용분야 개척을 위한 R&D 동향 ▲연구기관의 그래핀 산업화를 위한 연구동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11/01/19>